

NO MOTHER NATURE STATEMENT KOR

강이연

인류는 우리의 편의를 위하여 실재를 객관화하고, 복잡한 개념들을 압축하는 은유를 사용한다. 이 과정에서 우리는 일반적, 감성적, 대중적이거나, 또는 광범위한 문화권과 신화적 이미지에 조응하는 은유를 선택하는 경향이 있다. Latour 가 말했듯이, 이 과정을 통해서 허구적이거나 추측적인 개념들이 만들어지는데, 이러한 수사적 장치들은 인간의 사고에 의식적, 무의식적으로 영향을 미친다. 우리는 이것이 불러오는 결과가 생각보다 위험할 수 있다는 것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본인의 작업은 'Mother Nature'라는 용어를 고찰한다. 인류는 매우 오랜 시간 동안 자연을 '어머니'라 부르며 인격화 해 왔다. 데카르트로부터 시작된, 서구의 이분법적 사고방식은 이러한 상징 구조를 더욱 공고히 했다. 그 결과, 자연-문화 (nature-culture) 뿐 아니라, 남성-여성을 구분하는 우월적 양분 구조에 기초하여, 자연은 온화하고 유기적인 여성의 모습으로 정형화 되었다. 이러한 지배의 언어를 계승하는 일레인 'Gaia'는 여성과 자연을 지속적으로 객관화하는 가부장적 이원론의 계층적 전통을 강화한다. 이러한 이분법적 모델로 강요된 자연은 '우리가 이해하고 싶은' 자연이지, 결코 그대로의 자연이라 할 수 없다. 이렇게 고착된 자연관을 토대로 인류는 스스로에게 자연계에 대한 지배권을 부여했다. 'Mother Nature'는 자연-문화를 가르는 이원론과 남성 우위적 세계관, 그에 내재하는 권력 구조가 결합된 결과물로서, 자연에 대한 인류의 광범위한 파괴와 착취를 정당화하는 은유적 도구이다. *자애로운 어머니인 자연은 우리를 배반하지 않을 것이다. 우리가 아무리 말썽을 부리고 괴롭혀도, 어머니는 우리를 보듬고 포용해 줄 것이므로.*

팬데믹 이후의 세계를 엮어가기 위해 우리에게 절실한 사고의 전환은 무엇일까. 나는 그 실마리를 여기서 찾는다. 자연을 의인화하여 성차별주의적인 방식으로 바라보는 사고의 전환이 필요하다. 인류의 신화와 도그마로 만들어낸 젠더적 이미지의 지구의 모습은 위태롭다. 'Mother Nature'를 둘러싼 위험성을 직면해야 한다.

자연은 포용적 어머니가 아니며, 끊임없는 Flux 안에 존재하는 역동적이고, random 하고 heterogeneous 한 존재이다. 본인의 작업, 'NO MOTHER NATURE'는 이러한 지구의 모습을 담아낸다. 우리는 자연의 많은 알고리즘들이 인간의 완전한 이해를 넘어선다는 것을 받아들여야 하며, 그러한 신비에 경탄해야 한다. 미디어 아트 프로그램 <INSCAPE: Voyage to Hidden Landscape>의 일환으로, 파라다이스 아트 가든의 대형 파사드에 펼쳐지는 'NO MOTHER NATURE'는 몰입적인 디지털 벽화 작업으로, 공공 장소에서 이 같은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이다. 이 작업에서는 다양한 자연의 모습들이 terra incognita, mare incognitum 의 모습으로 그려지고, 강력한 힘을 지닌 대상으로 묘사되는 landscape 들은 경이로운 동시에 위태롭고 위험하다. 작업의 후반부에는 여성의 신체가 깊은 수면으로 가라앉았는데, 이는 'Mother Nature'가 내포한 자연에 대한 젠더적 해석을 벗어나고자 함이다. 어머니가 아니라, 한 순간 인류를 집어삼킬 수도 있는 자연의 모습을 이해하는 것, 그것이 자연을 무너트린 우리에게 절실하다.

NO MOTHER NATURE STATEMENT EN

Yiyun Kang

For our own sake, humans use metaphors to objectify reality and to condense complex concepts. In this process, we seek general and emotional metaphors to dramatise and popularise the concepts and these metaphors tend to conform to a wide range of cultures and mythical images. As Latour argued, fictive or speculative concepts are created through this process, and these rhetorical devices consciously and unconsciously influence our way of thinking. We should not overlook that the consequences of this can be more dangerous as these terms are not derived from empirical evidence or knowledge and thus they can distort reality.

My work aims to tackle the term 'Mother Nature'. Humanity has been anthropomorphizing nature by calling it "mother" for a myriad of times. The Western dichotomy further solidified this symbolic structure. Nature was forced into the dualistic model with notions of nature–culture, wilderness–civilisation, man–woman. As a result of the Cartesian separation and other dualisms associated with a patriarchal view, nature has been standardised as a gentle and loving female. 'Gaia', an example of inheriting this language of dominance, reinforces the hierarchical traditions of patriarchal dualism that continuously objectifies women and nature.

Based on this rhetoric concept, humanity endowed itself with control over the earth. "Mother Nature" is the result of a combination of dualism, male-dominated perspective, and related power structures. This term has been used as a metaphorical instrument that justifies the widespread destruction and exploitation of mankind in nature. *Nature, the 'graceful mother,' will not betray us. No matter how much we make trouble, our mother will embrace and heal us.*

How should we weave the post-pandemic world? What kind of shift in thinking should we start with? To conceive nature in ways that are not anthropomorphic or sexist could be a critical transition for the dismantling of our fixated discourses on nature. The myth and dogma associated with Mother Nature are at stake. We have to admit that is how we exploited and endangered the earth.

Nature is not an embracing mother, but a dynamic, random, and heterogeneous being that exists in constant flux. My work, 'NO MOTHER NATURE', captures this image of the Earth. We must accept that many of nature's algorithms are beyond full human comprehension, and indeed marvel at such mystery. As part of media art programme <INSCAPE: Voyage to Hidden Landscape>, 'NO MOTHER NATURE' generates an immersive digital mural on the large-scale facade of *Paradise Art Garden*, where we can share this story in a public space. I illustrate various landscapes as terra incognita and mare incognitum, which are magnificent, but at the same time dangerous and precarious. In the last part of the work, the woman's body is submerging into deep water. This is to avoid the sexist interpretation of nature and to fathom nature as a dynamic force that can swallow humanity in just one moment. There is 'No Mother Nature.'